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3년 여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아시아의 문화를 담아 세계에 선보이게 될 전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해기 조종=광주시 소빙향대장 박형순 부가림 문연진)  
/니광주기자 mjna@kwangju.co.kr

# ACC 완공 앞으로 3년, 광주의 역사는 2014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아시아문화전당〉



프랑스 파리 필하모 센터

오는 2014년 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과 함께 광주는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를 통해 도시를 재생하는 시도를 나서게 된다. 국비 7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6년의 대역사를 통해 들어설 전당은 전시·공연은 물론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문화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보급, 평화 안개의 구체화를 통한 광주의 이미지 환상,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 시설 등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도심 속 문화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세기와 21세기 초 구도심 재생, 산업시설 리모델링 등의 목적으로 유럽과 일본에 들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남긴 프랑스 파리 필하모센터,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일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등과 전당의 근본적인 차이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2014년 말 전당의 완공과 함께 광주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

▲아시아 37억원의 빛과 어둠을 포용하는 공간으로  
전당은 이미 광주만의 것이 아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상징이 될 전당은 아시아 46개국, 36억8000만 명의 역사전통과 문화, 그리고 사고방식 등을 반영하고 그것을 통해 아시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태생적으로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당

은 또 유럽이나 미국 등 서양의 시각에서 바라본 '오리엔탈리즘'을 탈피하고 가장 동양적이고, 한국적이며, 광주다운 사고에서 아시아의 문화를 재해석하는 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문화의 변방이었던 아시아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과 함께 그 중심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세계문화를 선도했던 유럽·미국 등 서양의 문화에 대한 연구분석도 배울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의 문화 가치를 높이고 첨단-미디어산업과 융복합에 나서 세계 문화산업을 선도할 콘텐츠를 양산하고 산업화·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와 연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시설의 수준은 이미 담보된 만큼 아시아인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춰 명실상부한 세계의 문화 산실로 가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시각과 마인드, 아시아의 빛과 어둠을 포용할 수 있는 폭넓은 사고 등은 전당이 들어설 광주시민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

▲전당뿐 아니라 그 주변에도 사람이 넘쳐나도록  
전당 내에서는 문화의 수렴과 연구에서부터 콘텐츠 기획·창조와 제작·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전 과정이 통시여 이뤄진다. 또 도서관·소극장·미디어센터·휴식공간 등 일상적인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

과 전시, 페스티벌 등 이벤트를 통해 상시근무인원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일 것이다.

문제는 전당 주변, 즉 구도심 일대까지 이들이 분산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다. 또 문화산업 투자자, 기업체, 예술인 등이 전당의 주변에 포진하고 지속적으로 전당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지난 1977년 문을 연 파리의 콩피투센터는 개관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주말이면 수만 명의 인파가 찾고 그 주변으로 연계된 관광과 거리카페, 상가 등에 수십만 명이 움직이고 있다. 박물관과 갤러리, 도서관 등이 즐이선 이 단일 문화시설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시설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은 주변 공간과의 조화를 이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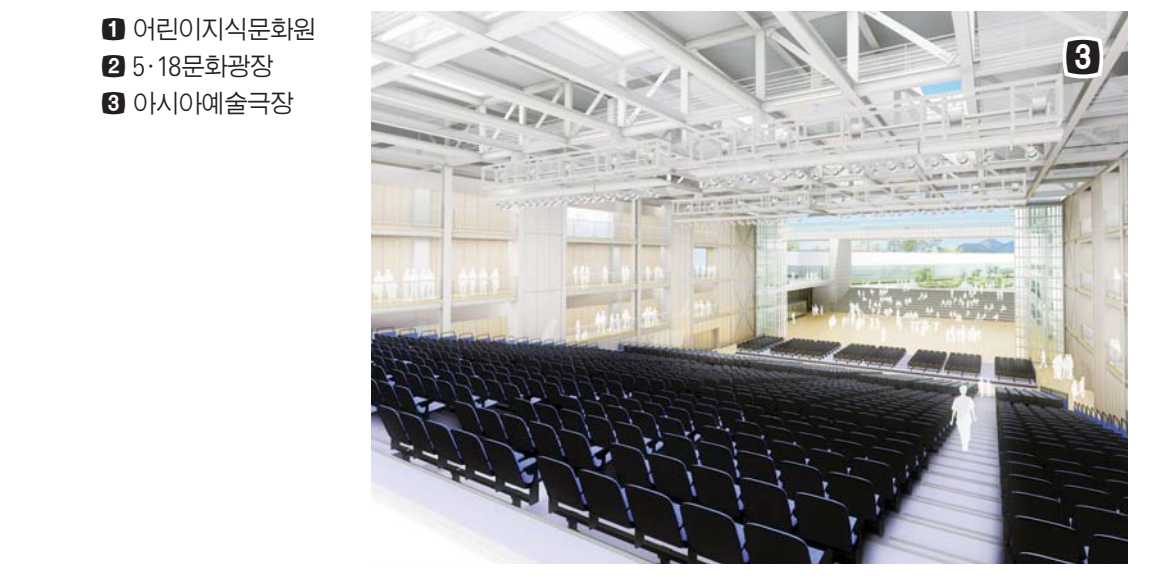
네덜란드 덴 하그(헤이그)는 지역 대표 예술가인 모리스 코리넬리스에서(Maurits Cornelis Escher)의 작품과 현대적인 해석을 담은 예서 박물관을 설립해 도시의 대표 문화시설로 꾸꾸고 있다. 지역의 대표 예술인의 작품세계를 하나의 공간에 집적시킴으로써 매년 수만 명의 학생과 예술인에게 그의 작품을 매개로 한 도시 곳곳의 건축물, 가로시설물 등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문화전당 어떻게 구성되나  
전당은 크게 5개영역으로 나뉜다. 아시아예술극장(대극장, 소극장), 문화창조원(문화콘텐츠기획창작센터, 문화콘텐츠제작센터, 복합전시관), 아시아문화정보원(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지원센터, 아시아문화아카데미), 민주평화교류원(민주인권평화기념관,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 경영전략지원센터), 어린이지식문화원(교육문화콘텐츠개발원, 어린이박물관) 등이 그것이다. 이 중 민주평화교류원을 제외한 4개의 신축 건축물은 모두 지하 1~4층 공간에 들어서고 상층부는 복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보존 건물인 옛 전남도청 본관 및 별관, 상무관, 민원실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신규 건축물과 보존 건축물이 외형적인 디자인은 물론 내용상으로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리모델링의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보존 건축물 공사과정을 살펴보면 전당의 전체적인 개념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에셔 미술관



- 1 어린이지식문화원
- 2 5·18문화광장
- 3 아시아예술극장

## 기고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이다. 주요 향유시설로는 전시관 3개, 공연장 5개소, 도서관 2개소, 광장 5개소가 있다. 또 이곳은 국가와 장르의 경계를 넘어 문화예술을 고양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허브 역할을 맡는 신개념의 공간이다.

현재 전당 건립공사는 22% 정도이지만 내년에는 75%까지 들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전당의 화두는 콘텐츠다. 2014년 전당 개관 시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감동을 안겨줄 콘텐츠를 내놓게 된다. 전당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그런

뮤지컬페스티벌'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계속 개최한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아시아문화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한편 창작의 원천소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문화자원부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조사·수집할 아카이브 대상으로는 아시아의 스토리, 조형상징·예술, 의례·공연예술, 의·식·주, 이주· 정착 등 5대 영역으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한·중·일·아 스토리와, 전통음악 등을 원천 문화자원으로 확보해 왔으며, 올해에는 아시아의 스토리, 암각화, 문양 등을 조사·수집 아카이브 해나기면서 그 영역을 점차 확

## 앎전당,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의미에서 2014년은 광주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14년 9월이던 인천에서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고, KTX가 새로 개통해 서울에서 광주까지 채 1시간 30분도 걸리지 않는다. 2015년에는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도 개최된다. 이러한 여건을 잘 활용하면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한 전당 운영 체제 구축과 콘텐츠 만들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아시아예술극장은 창·제작 중심의 아시아 컨템포러리(contemporary) 공연예술센터로서 비전을 갖고 국제공모·국제 프로듀서 캠프를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시아 5개국과는 전통연희를 매개로 교류의 기반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전당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비즈니스 플랜, 아시아 문화·실용을 융합해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새로운 음악시장 창출한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광주월드

창하려 한다.

어린이문화원과 민주평화교류원은 도청별관 문제로 인해 더더 가고 있던 하지만 2014년 이전까지 운영방안 및 콘텐츠를 마련해 전당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공연예술 감독은 2011년 말에 선임될 것이다. 본격적인 개관 작품은 감독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 중 마름 두드러진 사업은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사업이다.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10개국과는 전통음악 오케스트라를, 남아시아 17개국과는 전통무용을 매개로 교류의 기반을 쌓아 가고 있다. 향후에는 서아시아 22개국과 영상을 통해, 동북아시아 5개국과는 전통연희를 매개로 교류의 기반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전당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비즈니스 플랜, 아시아 문화·실용을 융합해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새로운 음악시장 창출한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광주월드